

급성 신우신염의 임상양상

순천향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오현숙, 윤형근, 최수정, 김나리, 김진국, 황승덕

급성 신우 신염은 가임기 여성에서 흔하며, 발열, 오한, 측복부 동통, 척추 늑골각 압통, 백혈구뇨 및 세균뇨를 보이는 임상 증후군으로 신우신매의 감염이다. 급성 신우신염에서 상부와 하부 요로감염의 감별, 요로계 이상, 합병증 등을 찾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쉽게 이용한다.

본 연구는 2001년 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상부 요로감염의 전형적인 증상 및 징후와 백혈구뇨, 세균뇨가 동반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 186명 중, 여자가 181명, 남자가 5명이었고, 연령은 37.35 ± 18 세이었다. 선행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빈혈, 간염, 임신, 빈혈, 갑상선 기능항진증, 뇌졸중이었다. 소변배양 검사는 176례에서 시행하였고, 양성율은 58례(33%)이었고, 이 중 E. Coli가 54례(93%), 그 외 Streptococcus Viridans, Candida Albicans, Enterobacter aerogens, Moraxella morganii 각각 1례였다. 혈액 배양 검사는 132례에서 시행 하였고, 양성율은 17례(13%)이었으며, 이 중 E. Coli가 15례(93%), 그 외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가 각각 1례였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신실질 변화가 18례, 지방간 15례, 복수 10례, 비장 비대 6례, 신농양 4례, Duplicated Kidney 4례, 담낭벽 부종 4례, 신낭종 4례로 관찰되었다. 발열 기간은 평균 5.25일이었고, 입원 기간은 평균 7.7일, 항생제 변화는 13%이었다.

급속 진행성 사구체 신염으로 면역억제치료를 했던

지속성 복막투석환자에서 발생한 거대세포바이러스 폐렴 1례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황원민*, 임동미, 송현용, 윤성로

거대세포바이러스 폐렴은 면역 저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환자는 장기이식, 골수이식 또는 에이즈, 장기간의 면역억제요법을 시행 받은 경우이다. 이러한 면역 저하자에게 발생한 거대세포바이러스 폐렴은 진단하기 어렵고, 예후도 나빠서 조기진단 및 예방이 중요하다. 저자들은 무면역침착 반월상 사구체 신염의 면역억제요법을 중단했던 지속성 복막투석환자에게 발생한 거대세포바이러스 폐렴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70세 남자로 내원 3달전, 전신무력감 및 부종이 있어 용급실 통해 내원하여 급성신부전으로 용급혈액 투석을 실시하였다. 신장내과로 입원하여 시행한 신 조직검사와 ANCA정량검사에서 무면역침착 반월상 사구체 신염(P-ANCA associated crescentic glomerulonephritis, pauci-immune type)로 진단하여, Cyclophosphamide와 prednisolone으로 면역억제치료를 하였고, 신 대체요법으로 지속성 복막투석을 시작하였다. 복막투석을 시작한 1달 후 Klebsiella oxytoca에 의한 복막염 발생하여 입원 치료 중 범혈구 감소증도 동반되어 있었다. 따라서, 면역억제 치료는 27일간 시행후 중단하였고, 동정된 균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 치료 후 임상증상 및 범혈구 감소증도 회복되어 퇴원하였다. 퇴원 1주일 후 환자는 노작성 호흡곤란이 심하여 다시 내원하였다. 내원당시 시행한 흉부 X선상 모자이크 양상의 다발성 낭종을 동반한 ground-glass의 간질성 폐렴양상과 말초혈액검사상 심한 백혈구 감소증으로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추정 진단하고, gancyclovir로 치료하였다. 흉부 고해상도 전산화 단층촬영상 거대세포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에 합당한 소견들이었으며 CMV PCR(+)로 나타났다. 이후 항바이러스 및 산소공급으로 환자의 증상과 흉부사진은 경도의 호전을 보였으나, 재원 5일경 심한 빈호흡과 동맥혈가스검사의 악화로 기도 삽관 후 기계호흡을 하였고, 재원 10일경부터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진행하여, 저산소증상태로 지속하다 재원 17일 사망하였다.